

# 책임성을 중심으로 본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유지영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Study on Paternal Involvement in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Jiyoung Yoo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 약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 및 생계부양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남성들의 양육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여성이 항상 일차적 양육의 책임자인 현실에 문제제기 하면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책임성이란 자녀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 대비, 총괄하는 양육의 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책임성은 성정치적 영역인 양육에서 진정한 양성 평등적 양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대기업에 재직하는 20-40대 남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양육 중 책임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남성들은 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상대적으로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책임성에 속하는 양육에는 참여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도 책임성을 중심으로 양육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임과 동시에, 관련 제도 및 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아버지 양육참여, 부성, 책임성, 양성 평등적 자녀양육, 남성 돌봄

**Abstract**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fathers involve more in child rearing than ever given that dual earner families are increased in South Korea. Present study aims to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responsibility and examines the participation in childcare responsibility of fathers by performing survey. Responsibility is illustrated as paternal taking ultimate responsibility for child's welfare and care such as monitoring, planning, concerning, organizing, arranging and doing for childcare. Regarding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both twenty questions asking reasonability and twenty questions asking non-responsibility are included in the questionnaire.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es, present study shows that father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those twenty items of childcare responsibility, compared to twenty items of childcare non-responsibility. Implications are also provided. Responsibility of paternal involvement particularly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sense that childcare has contributed to pertaining inequality for women in both the workplace and domestic life.

**Key Words** : Paternal involvement, Fathering, Responsibility, Gender equality child rearing, Male care

###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계부양 부담이 증가함에 따

라 이제 남성의 양육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자녀양육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중

\* 이 논문은 남서울대학교 2016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ceived 1 September 2017, Revised 29 September 2017  
Accepted 20 October 2017, Published 28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Yoo (Namseoul University)  
Email: jiyoungyoo@ns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근래의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자녀 양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도 여성을 주된 양육자로 보는 인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양육의 책임에서 이차적이거나 혹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남성들의 양육 참여 중 책임성(responsibility)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2000년대 연구 중에서 양육의 책임성을 부각시킨 연구는 찾기 힘들다. 책임성은 본래 fathering 연구 분야의 Michael Lamb이 1980년대에 제기한 양육의 요소 중 하나이다. Lamb의 연구는 [16]인데, 그에 의하면 책임성은 자녀 병원 예약 및 동반, 베이비시터 찾기 및 결정 등 자녀 돌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성은 이렇게 자녀의 안전, 복지, 건강, 교육 등 자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 면에서 단순히 자녀 곁에 있어주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돌보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남성 양육 분야의 최근 연구들은 책임성을 중요하게 부각시키지 못했다.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으로, 본 연구가 남성 양육의 책임성을 주요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간의 진정한 양육 분담 즉 평등 양육은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성은 자녀와 놀아주고 (비책임성), 여성은 끊임없이 자녀의 의식주와 안성을 고민하고 부담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 (책임성)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할애한다고 해도 여전히 주된 양육자는 여성이다. 남성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양육에 할애하는가가 진정한 양육 분담의 기준이 아니라, 양육의 책임성을 남성도 얼마만큼 인지하고 실제로 분담하는지가 진정한 양육 분담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자녀 양육은 가치중립적인 영역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간의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유지 강화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규정된 성 정치적 영역임을 강조해왔다([23] 참조). 따라서 자녀 양육 분담은 가부장적 성별분업에 도전하면서 양성 평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성도 양육의 책임성을 분담해야 한다. 둘째, 책임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여성도 이미 주요한 생계부양자로 역할 한다는 배경 때문이다. 이제 여성의 이상적 삶을 전업주부로 인식하던 시대는 지났고 한 가족에 두 명의 생계부양자가 존재하는 것은 매우 자

연스럽다. 아내가 남편의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남성들 사이에서도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으면서 여성들의 취업은 단순히 자아실현이 아니라 생계의 부담을 함께 지는 의미 특히 자녀 양육 및 교육비를 분담하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성이 취업을 통해 가정 밖에서 활동하는 양상이 남성과 유사해짐에 따라 양육의 주 책임자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부모 아버지나 재혼하는 아버지들도 늘어감에 따라 오늘날의 남성들은 양육의 책임성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남성의 양육 참여 중 책임성의 의미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우리나라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한 대기업에 종사하는 20-40대 연령, 만 0세-7세 취학 전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그 연령대의 어린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아버지들이다. 연구자는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 양상은, 책임성에 해당하는 항목의 참여 정도가 책임성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참여 정도에 비해 적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 정도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은 빈도분석법(frequency analysis)등의 기술통계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가 주요 변수간의 관계 분석을 위한 요인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후속 연구로 남겨두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했던 남성 양육의 책임성을 새롭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탐색적 성격을 가진다.

## 2. 선행연구 검토

### 2.1 개념 검토: 양육의 책임성

자녀 양육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적인 상호작용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도 양육이고, 장난감과 운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것도 양육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것도 양육의 행위들이다. 동시에 병원에 자녀를 데려가는 것도 양육이며, 자녀 보육 기관을 방문하고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도 양육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양육에도 매우 다양한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 다양

한 행위들을 처음 세 가지로 구분한 연구는 [16]이다. 그는 자녀양육의 세 가지 요소로써, 접근성 (accessibility, (예) 자녀 곁에 있어주기), 직접참여(engagement, (예) 놀아주기 먹이기 입히기), 책임성 (responsibility, (예) 자녀가 아픔을 인지하고 병원에약 및 동반 등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행위)을 들었다. 다음 <Table 1>에 보이듯이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남성들의 양육을 ‘책임성’과 ‘비책임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책임성은 Lamb의 responsibility를 의미하며, 비책임성은 Lamb의 accessibility와 engagement, 즉 접근성과 직접 참여를 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책임성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일까? [16]은 책임성이 중요한 만큼 정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책임성에 대한 학자별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책임성에 대한 학자별 정의는 다음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Definitions on Responsibility

Research	Definitions on Responsibility
[16]	Degree of taking ultimate responsibility for your child's well-being and care
[20]	Decision-making and monitoring
[21]	Responsibility for caring for children different from ordinary caring
[17]	(among mother or father) Who remembers, plans, and schedules no matter who does the act?
[6]	Including important decisions and actions abou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the child and the emotional labor accompanying the process
[4]	Although it does not require certain rules, taking responsibility for what your child needs
[7]	Responsible for the overall responsibilities of child care and the overall role of recognizing, planning, deciding and acting on the necessary material and nonmaterial matters

Source: from Table 2 of [7]

학자별 다양한 정의 중에서, 양육의 책임성을 최근에 가장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연구는 [7]이다. [7]은 국외 연구로는 [16]이나 [20]을 그리고 국내 연구로는 [6]이나 [4]의 연구 등을 기초로, 자녀양육의 책임성 개념을 종합적으로 재 개념화했다. 그가 정의한 책임성의 개념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책임을 느끼고, 필요한 물질적/비물질적 사항을 인지, 계획, 결정, 행동하는 총괄적인 역할’ 이다 (유지영 2014). 책임성은 노동집약적 형태의 자녀 돌봄 예를 들면,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놀아주기 등과는 구분되는, 부모로써 자녀 건강 복지 교육 등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를 위한 주요 사항들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총괄자이자 경영자적 역할이다 (유지영 2014). <Table 2>는 본 연구가 이분화한 책임성과 비책임성 (접근성 + 직접참여)을 정리한 것이다.

책임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녀가 아플 때 중요한 결정, 베이비시터 결정, 계절에 맞는 입을 옷의 대비 및 준비, 사교육에 관한 다양한 결정 등이고, 비책임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놀아주기, 입히기, 먹이기, 씻기기, 곁에 있어주기 등이다.

본 단락에서 정리하는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은 III장의 ‘1. 책임성 설문지 구성’ 에서 이용된다. 어떤 양육 행위가 설문지의 책임성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책임성 항목에 포함되는지 결정할 때, 그 행위가 본 단락에 정리된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에 충분히 부합하면 책임성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비책임성에 넣는다.

[7]에 의하면 책임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책임성은 다른 일과 병행 가능하다. 여성들은 업무 중 혹은 가사일 도중에도 담임교사와 자녀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며, 그것이 반드시 양육이라는 한 가지 행위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책임성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 자녀가 아플 때 의사를 만나는 것은 자녀를 동반하지만 베이비시터를 선정하는 과정 및 결정에는 자녀 없이 상당 시간을 소요하며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 책임성은 격정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감정적 노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것은 책임성과 비책임성 모두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책임성에 속하지만 자녀를 먹이고 씻기는 등 적극적으로 돌보는 행위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그러나 책임성은 앞서 정의했듯이, 경영자적 역할이고 조직화(organizing)와 행함(doing)이 연이은 경우가 많아서 다른 양육의 행위들에 비해 정신적 부담감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 있다. 넷째 남성들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책임성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라는 것은 과거 권위적 생계부양자에서 언제부터인가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는 다정한 아버지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책임성에 속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일차적으로 부담함을 부인할 수 없다. 남성이 자녀에 대한 자세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것에 미리 책임을 느끼고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Table 2> Responsibility Vs. Non-responsibility for Childcare<sup>1)</sup>

	Responsibility	Non-responsibility (accessibility + engagement)
Definition	-Responsible for the overall aspects of child care and the overall role of recognizing, planning, deciding and acting on the necessary material and nonmaterial matters  -As a parent, feeling that I need to educate my child and taking responsibility for children's health and welfare; Role of controlling and managing; Role to know those tasks in advance	Accessibility = Passive indirect approach / Being in a position to respond when children need it  Engagement = Active care/active play, one-to-one interaction between father and child
Components	-Deciding when to meet a doctor when your child is sick -Booking for meeting a doctor -Making a child meet a doctor -Determine and arrange a baby sitter or other substitute caregiver -Preparing clothes to wear -Decisions on private tutoring institutions, subjects, hours, days of week, etc.	(Accessibility) -Staying with children -Doing chores related to children -(When children play in the next room) Cooking in the kitchen -children's playing next to the father when (father's) cooking -Watching TV together  (Engagement) -Feeding, washing a child, putting a child to sleep -Playing, doing sports together -Doing homeworks together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돌봄에 참여하는 아빠’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 남성은 책임성 참여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남성들에게 양육의 책임성을 미리 인지하고 수행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 이유는 남성들의 직장문화(회식, 야근)나 노동시장과 가정에서 고정된 성별분업 때문일 것이다. 책임성은 감정적 정신적인 것과 동반되는데, 남성들도 양육자로서 사회적 역할이 부과되는 가운데 특유의 감정들을 경험하긴 하지만[13], 감정은 공적 영역의 주요 행위자인 남성들에게 적절한 덕목이 아니었고 따라서 남성들의 감정이 사회 문화적으로 배제된 것도 (조윤경 2011) 책임성에서 남성들이 멀어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 2.2 성정치적 영역인 양육

남성 양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젠더적 관점에서 양육을 보는 여성학이나 사회학보다는 가족학, 아동학, 간호학, 심리학 등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남성 양육 관련 연구에서 주류는 아직까지 자녀 성장 발달 쪽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양육 참여가 자녀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5]이나 [10]등이 있다. [10]은 남성 양육 참여가 자녀의 사회성과 자아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5]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15]는 남성이 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 효과가 어머니의 양육보다 더 클 수 있음을 보였고, [14]은 남성 양육 참여가 특히 아들의 성장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남성 양육 참여가 자녀 성장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시각을 갖지만, 양육이라는 영역을 가부장적 성별 분업이나 성별 불평등 측면에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양육은 성 중립적 영역이 아니며 가부장적 성별 분업을 유지하는 성 정치적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가사 노동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 또한 가부장제의 성별 권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일상적 축이다. 남성 위주의 사회는 출산을 마친 여성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주로 비정규직 저임 노동만을 제공하고, 남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고임금 직장을 제공함으로써 양육에 여성이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정치성을 유지 강화시킨다. 가족 및 여성 스스로도 가족의 총 소득을 높게 하

1) 남성 양육을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책임성과 구분되는 나머지 두 요소(접근성과 직접참여)를 합해서 편의상 ‘비책임성’이라 명명했다

는 전략으로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취업한다 해도 이차적 생계부양자 및 일차적 양육자로 스스로를 위치 지운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의 사회화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증가하고 그들의 소득도 가족 생계에 절반 이상 기여할 때, 양육에서의 갈등, 공백, 부담감이 발생하게 된다. 크고 작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동안 양육의 공백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즉 양육의 사회화 정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성의 취업은 양육 분담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남성의 양육참여를 가부장제, 성별 분업, 성별 불평등 문제와 연관 지어 보았기 때문에 책임성에 해당하는 양육의 요소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 책임성에 남성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덜 참여하고 있어서 성별 불평등한 양육이라는 단순 비교를 넘어야 한다. 남성들 또한 직장/가정의 이중 부담 속에서 비록 적은 시간 양육에 참여 할지라도, 양육의 책임성에 남성들이 더욱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양육 중에서도 책임성은 양육의 성별 분업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주요 지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게 남성의 양육에 대해 젠더적 시각을 가진 연구로는 [3]이나 [8]의 연구가 있다. 특히 [3]은 남성의 양육 참여를 성 평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3]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을 심층 면접한 결과, 그 남성들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돌봄을 선택했고,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믿음으로 성 평등한 부성을 실천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평등한 양육 참여와 책임에 대한 남성들의 소극적 이해는 가족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또 [3]은 그 남성들은 평등한 부부에 대한 이상주의적 태도, 성역할에 대한 양가감정을 견지한 채 새로운 부성 담론을 수용해서 부모 역할을 둘러싼 협상을 불평등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진정한 평등을 향한 전망을 좌절시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3]은 이제 가정 내에서 개인의 노력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남성양육에 대한 급진적인 인식 전환과 함께 남성을 주된 돌봄 책임자로 위치시키는 정책과 제도가 다각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성은은 비록 양육의 책임성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주 돌봄 책임자로 위치시키기 위한 정책

이나 제도를 강조한 점은 추후에 소개될 본 연구의 결과 및 정책 제안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젠더적 관점에서 본 연구들이 반드시 남성 양육을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2]은 성별 분업이 강건한 부부 사이에서 남성의 양육에 대한 관심이 전업주부인 여성을 간섭, 감독함으로써 부부간 성별 권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2]의 연구는 특정 조건(성별 분업이 강건한 다소 수직적 관계의 부부)에서 남성 양육을 분석한 것이므로 [3]의 연구와 [12]의 젠더적 관점이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제는 남성의 양육이 어떠한 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시적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이 아버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감축 등 거시적이고 제도적 대안들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양육을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귀속된 것으로 보면서, 특히 성별간 평등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지점인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조사 설계 및 자료 분석

#### 3.1 책임성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남성 양육의 책임성과 비책임성을 묻는 문항을 각각 20개씩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Table 3> 참조). 책임성 항목 20개를 구성의 기준이 된 것은, 기존 문헌에서 책임성으로 규정된 것들 외에도 앞 단락에서 설명한 책임성의 개념과 특성에 맞는 행위일 경우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기존 문헌들에 나와 있는 양육 행위들 중에서 책임성의 특성과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책임성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본 연구의 책임성 개념화에 길잡이가 된 [16]와 [21]에서 책임성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가 아플 때 병원 예약 및 의사에게 자녀를 데려가는 일련의 행동,’ ‘베이비시터 조율,’ ‘자녀가 입을 옷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 를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자녀가 보육기관이나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 집에 최대한 있으려는 노력[1], ‘어린이집/유치원 담임교사와 지속적인 의견 교환,’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및 기관 방문,’ ‘자녀 친구의 부모 및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 등도 책임성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자녀 의식주와 관련된 책

임성은 [18]의 PTI와 [6]을 참조하여, ‘자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결정(매뉴얼정부터 장보기, 요리, 상차림 등 총괄적 일련의 과정)’을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22]의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 Care Index(PICCI)는 남성 양육 참여를 총 22개 문항으로 묻는 척도인데 이 중에서 책임성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본 연구의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18]의 Parenting Task Index(PTI)는 자녀 연령대별로 구성된 척도인데 어린 자녀를 위한 문항 40개 중 책임성 해당 항목들을 본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19]은 척도는 아니지만 남성 양육 참여를 무려 11개 분류, 92개 항목으로 정리했는데, 그 11개 분류 중에서 모니터링(monitoring), 계획(planning)등에 포함된 몇 가지 항목이 본 연구의 책임성에 부합하였다. 자녀 교육 관련해서는 [18]의 PTI에서 보육기관 및 학교 선택, 자녀 생일파티에 대한 결정 및 준비,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에 참여를 책임성 항목에 포함시켰다. 특히 자

녀교육 부분은,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일반화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 사교육에 대한 의사결정 및 기관 방문’을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돌봄의 공백이 생겼거나 대리 양육자에 관한 책임성에는 ‘베이비시터 결정 및 조율,’ ‘오늘은 (돌봄 공백의 경우) 자녀를 누가 대신 돌볼지 하는 결정,’ ‘아버지의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등도 책임성에 포함시켰다.

비책임성 항목에는 자녀 주변에서 소극적으로 돌보거나,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돌보는 양육의 행동들이 포함되었다; 자녀 놀 때 근처에 있기, 자녀 근처에서 요리하기, 자녀 관련 집안일, 숙제 학습지 도와주기, 책임어주기 등 총 20개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이 항목의 구성 또한 이 단락에서 언급한 국내외 문헌들이 기초가 되었다. <Table 3>의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응답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의 세 단계 서열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책임성을 문

<Table 3> Questions Asking Responsibility and Non-responsibility on Questionnaire

Responsibility	Non-responsibility (accessibility + engagement)
Hospital reservation or going to the hospital with children(when children are sick)	Being near or around when your child is playing
Taking a work off when children are sick	Cook in the kitchen when your child is nearby
Taking care of children when they are sick(as a primary care giver)	Watching TV or watching your cell phone near your child
Knowing and preparing clothes(in advance) what children wear	Being nearby when your child is at Kids cafe or play room
Deciding what your child should eat for breakfast / lunch / dinner	Trying to minimize the number of going out or appointments to be with your child
Online / offline shopping for children’s products (except when asked by a spouse)	Child-related housework (child laundry, child room cleaning, ironing clothes, etc.)
Baby sitter determination and arranging	Feeding your child (prepared meal)
(Sudden absence of caregiver) Deciding who takes care of children instead	Helping your child wear clothes
Applying or using paternity leave	Helping your child’s feces
Deciding on private tutoring and school	Cleaning your child(shower..etc)
Choosing a day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Getting your child sleep on bed
Participating in parent education program provided by child care facilities/kindergarten	Helping your child with homework
Trying to be home when your child returns from a day care center or kindergarten	Playing with your child (toy play, exercise, etc.)
Getting your child ready (for Kindergarten, play school, etc.)	Talking with or answering to your child in person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kindergarten/day care teacher	Eye-contacting, hugging, kissing, etc
Decision-making and visits in order to decide children’s private tutoring or private institution	Read to your child
Continuous contact and exchange with parents of your child’s friends	Helping your child with getting started such as biking, skiing, swimming, etc
Deciding and preparing your child’s birthday party	Accompanying with your child at beauty salon
Caring for your child alone without an assistant	Riding or walking your child to private institute or tutoring
Communicating frequently with your child during business hours or on the go	Riding or walking your child to school(or daycare or ,kindergarten)

<Table 4> Contents of Questionnaire

	Number of question	Examples
Responsibility	20	Twenty questions including hospital reservation, preparing clothes, etc.
Non-responsibility	20	Twenty questions including feeding, cleaning, etc.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20	Educational level, age, number of children, marital status, etc.
Questions on housekeeping and child care	3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housekeeping?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 care? Getting help from grandparents for child care

는 문항 외에도 남성들의 학력, 소득, 재산, 일일 평균 근무시간, 조부모 양육 보조 여부, 근로 특성, 여성배우자 관련 질문 등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설문지를 완성한 후 특히 책임성과 비책임성 20개 항목의 리커트 척도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일종의 텔파이 기법으로 전문가 2인에게 척도를 검토하게 하여 책임성의 20개 항목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산출될 때까지 척도의 문항을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특히 그들은 책임성에 포함되는 20개 항목이 책임성의 개념 및 특성에 맞는 항목인지 일일이 검토하였다. 또한 내용타당도법으로 타당도 검증을 거친 결과 Chronbach alpha값이 약 0.75로 산출되었다.

### 3.2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 권에 소재한 S 대기업에 전일제로 근무하고 있는 20-4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남성들의 양육은 자녀의 전 연령대에 주요하겠지만 성장한 자녀를 둔 양육과 취학 전 자녀를 둔 양육은 매우 다를 것이다; 자녀가 양육자에게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각 연령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남성들의 양육에 대한 가족 내 필요성이 취학 전 자녀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대를 학령기 이전 만 0세-7세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하였다. 현재 그 이상 연령대의 자녀를 둔 아버지에게는 과거의 자녀가 어렸을 때 양육 경험을 기억해 응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설문조사는 약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총 200부를 배부해서 총 180부를 수거하였고 이 중 유효한 167부를 표본으로 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정 인원수의 보조 연구자가 S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남성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문지에 응한 경우

적절한 금액의 보상을 제공하였고 며칠 후에 수거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기업에 재직 중인 특정 조건의 남성들만을 설문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될 결과들은 일반화할 수 없으며, 제한된 연구 대상자들을 조사해 얻은 자료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양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도 책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탐색적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이 될 수 있음을 동시에 밝히는 바이다.<sup>2)</sup>

연구 윤리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로 연구자가 속한 기관인의 생명 윤리 운영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 받았으며, 연구를 시작할 수 있음을 허가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전반적인 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약속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발적임을 확인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문서로 받아 보관하였다.

### 3.3 자료 분석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 특성 관련 변수들을 산술평균, 빈도분석 등을 이용한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남성들의 학력, 소득, 근무시간, 조부모 양육 보조 여부, 주된 양육자는 누구인지, 배우자 학력, 직업, 소득, 근로시간<sup>3)</sup>, 배우자 근로시간 등을 주요

2) [9]도 특정 지방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밝히면서 일반화의 한계점은 있지만 지방대학생의 근로 경험과 취업 연결성에 관한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학문적으로 가치 있음을 밝혔다.

<Table 5> Respondent'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le respondents					
Age	39.0 (mean)		Number of children	1.5 (mean)	
Income	dual earner	7,650,000won	Wife's employment status	employed	526 (60.7%)
	single earner	4,100,000won		not-employed	341 (39.3%)
Marital status	Married+Children (living together)	786(90.6%)	Family type	Married+Children (living together)	756(87.2%)
	Married+children (separated)	69(8.0%)		Married+children (separated)	99(11.4%)
	Divorced+children	12(1.4%)		Divorced+children	2(0.2%)
	Widower	0(0.0%)		Widower	10(1.2%)
	Others	0(0.0%)		Others	0(0.0%)
	Total	867(100.0%)		Total	867(100.0%)
Male(Respondent) vs Female(Wife)					
	Male(Respondent)		Female(Wife)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0(0.0%)	High school	14(1.6%)	
	College(2years)	0(0.0%)	College(2years)	18(2.1%)	
	University	525(60.6%)	University	632(75.2%)	
	Masters	302(34.9%)	Masters	173(20.0%)	
	Doctoral	40(4.6%)	Doctoral	10(1.2%)	
	Total	867(100.0%)	Total	867(100.0%)	
Employment type	Regular	824 (95.0%)	Regular	414 (78.7%)	
	Irregular	0 (0.0%)	Irregular	52 (9.9%)	
	Others	43 (5.0%)	Others	60 (11.4%)	
	Total	867(100.0%)	Total	526(100.0%)	
daily working hours (mean)	12.3 hours/day		8.1 hours/day		
daily child care hours (mean)	weekdays	weekends	weekdays	weekends	
	1.5 hours	8.0 hours	7.5 hours	10.0 hours	

외적 변수들로 보고 각 변수별로 기술통계값을 얻었다. 책임성 20개 항목과 비책임성 20개 항목은 빈도분석하여 각 양육의 항목마다 남성들의 참여를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의 세가지 서열척도대로 빈도값 및 백분율값을 얻었다. 본 연구는 남성들이 책임성에 참여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통계 결과가 주요 연구 결과를 밝힌다. 본 연구 이후 후속 연구는 남성 양육 참여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이나 요인분석 등 추론통계 또한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특히 근무시간은 여러 연구에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분석 범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근로 시간과 양육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또 하나의 다른 연구가 되므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분석하진 않는다. 본 연구를 마친 후 수행할 차기 연구 주제로 남겨 두었다.

#### 4. 연구결과

##### 4.1 통계분석 결과 1: 조사대상 남성들의 기본 특성

<Table 5>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남성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S기업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은 중산층 이상 소득을 가진 고학력 유자녀 기혼 젊은 남성들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다. 실제 표본 조사 결과도 예상대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남성의 평균 연령은 약 38.5세로, 자녀수는 평균 1.6명이었다. 응답자의 배우자가 취업인 경우는 전체 남성 167명 중 93명으로 55.7%를 차지하였다. 외벌이인 경우는 평균 월 소득이 약 459만원이었으며, 맞벌이인 경우는 약 757만원으로 맞벌이의 소득이 외벌이 소득의 1.6배의 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이혼이나 사별인 경우가 없었고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동거인 상태가 99.4%를 차지하였다. 응답



자 중 한 명만이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별거인 상태로 나타났다. S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쉽게 예상되었듯이 조사 대상 남성은 모두 대학교 이상이거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었다. 석사 졸업인 경우도 31.7% 박사 졸업인 경우도 5.4%를 차지하여 석사 학위 소지자들이 전체의 약 37.1%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여성 배우자 또한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교 졸업인 4명(고졸 0.6% + 전문대졸 1.8% = 2.4%)을 제외한 나머지 97.6%가 대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며, 이 중 석사졸업이 약 20.4%, 박사졸업이 약 1.2%로 조사되었다.

가족 형태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응답자 167명 중 19명으로 약 11.4%를 차지하였는데, 맞벌이인 경우가 조부모와 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확인되어(조부모와 동거하는 19 케이스 중 15개가 맞벌이, 78.9%) 자녀 양육을 조부모에게 의지하기 위해 동거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비중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와 자녀만 함께 사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87.4%, 총 146명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2명인 1.2%만을 제외하고는 98.8%가 정규직이었고, 정규직이 아닌 2명 또한 고 연봉 계약직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성배우자는 취업한 배우자만 보았을 때 정규직이 여성배우자 취업자의 78.7%로 나타나 이 여성들이 우리나라 전체 여성노동자의 정규직 비율(1/4)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시간을 기입한 바에 따르면, 남성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 여성배우자는 하루 평균 8.2시간으로 약 2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평일 평균 양육 시간은 남성들은 약 1.5시간, 여성배우자는 무려 7.9시간으로 하루 평균 6.4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들이 주말 양육 시간으로 기입한 값은 남성과 여성 배우자간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는데, 남성들은 주말에 평균 7.9시간, 여성배우자는 평균 10.2시간을 양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2.3시간의 차이를 보였다. 평일과 주말 모두 여성 배우자가 남성보다 양육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는 의미인데, 남성들은 주로 자신의 양육 시간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남성들의 응답에만 기반을 둔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양육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able 6>은 양육이 주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부수적 질문에 대한 결과

이다. 남성 응답자들은 가사 및 양육의 주 부담자는 여성 배우자라고 응답했으며, 가사의 경우 전체의 61.1%, 양육의 경우 65.3%가 여성 배우자가 주로 한다고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배우자가 분담한다는 비율은 가사의 경우 전체의 약 28.7%, 양육의 경우 약 18.6%로 나타났다; 부부가 분담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사보다 양육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남성들이 양육을 가사보다 더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양육을 조부모가 전담한다는 비율은 9.6%, 베이비시터가 전담한다는 비율은 약 3.0%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반면 양육을 위해 조부모 도움을 받는 비율은, 거의 매일 받는다는 21.6%, 자주 받는다는 15.0%, 가끔 받는다는 24.0%로, 거의 받지 않는다 39.4%에 비해 거의 매일 혹은 자주 조부모 도움을 받는 비율은 전체의 60%가 넘었다.

<Table 6>의 결과만을 토대로 짐작할 수 있는 양육의 현실은, 남성들은 평일에는 거의 양육에 참여하지 못하고(평일 평균 양육시간 1.5시간), 주말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가능성이 크지만(주말 평균 양육시간 7.9시간) 평일 대부분의 양육을 여성배우자에게 전담시키거나 조부모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Table 6> Housekeeping and child care : Who are primarily doing(or helping) it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housekeeping?	Male (respondent, himself)	5(0.6%)
	Female (wife)	561(64.7%)
	Sharing (btwtn husband and wife)	240(27.7%)
	Grandparents	30(3.5%)
	Relatives other than grandparents	3(0.3%)
	Domestic helpers/ baby sitter	23(2.7%)
	Others	5(0.6%)
	Total	867(100.0%)
Who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child care?	Male (respondent, himself)	11 (1.3%)
	Female (wife)	578(66.7%)
	Sharing (btwtn husband and wife)	161(18.6%)
	Grandparents	85 (9.8%)
	Relatives other than grandparents	5 (0.6%)

	Domestic helpers/ baby sitter	23 (2.7%)
	Others	4 (0.5%)
Total		867(100.0%)
Getting help from grandparents for child care	Almost daily	182 (21.0%)
	Often	133(15.3%)
	usually	5 (0.6%)
	Sometimes	213(24.6%)
	Hardly	334(38.5%)
Total		867(100.0%)

4.2 통계분석 결과 2: 책임성 항목

통계 분석 결과 조사 대상자인 남성들의 양육 중 책임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책임성 참여에 빈도 분석 결과는, 남성들의 책임성 참여가 비책임성 참여에 비해 저조할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설에 대부분의 항목이 부합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부합하지 않는 흥미로운 발견을 보여준다. 다음 단락의 비책임성 참여를 보여주는 <Table 8>과 비교하면 더 뚜렷해질 것이다.

<Table 7>의 책임성으로 포함시킨 20개 항목들에서 남성들의 높은 비율이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항목이 많고, 그 항목들에서는 남성들의 낮은 비율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2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남성들의 50% 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첫 번째가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은 남성들의 89.8%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두 번째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은 남성들의 79.0%가, 세 번째가 ‘베이비시터 결정 및 조율’은 74.9%가, 네 번째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녀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결정’은 67.7%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녀가 돌아왔을 때 최대한 집에 있으려는 노력’은 남성들의 66.5%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여섯 번째 ‘자녀 준비물 및 가방 챙기기’는 65.9%가, 일곱 번째는 ‘자녀를 위한 쇼핑’은 53.9%가, 여덟 번째는 ‘부모 상담 및 교육에 참여’로 50.9%가, 아홉 번째는 ‘보육기관 및 유치원 선택’은 남성들의 50.3%가 거의 하지 않는다

<Table 7> Frequency Analysis: Responsibility among Fathers

No.	Questions	Hardly	Sometimes	Often
1	Hospital reservation or going to the hospital with children(when children are sick)	12.2%(106)	49.0%(425)	38.8%(336)
2	Taking a work off when children are sick	27.8%(241)	54.7%(474)	17.5%(152)
3	Taking care of children when they are sick(as a primary care giver)	28.7%(249)	54.4%(472)	16.8%(146)
4	Knowing and preparing clothes(in advance) what children wear	37.4%(324)	44.6%(387)	18.0%(156)
5	Deciding what your child should eat for breakfast / lunch / dinner	71.9%(623)	24.2%(210)	3.9%(34)
6	Online / offline shopping for children's products (except when asked by a spouse)	58.6%(508)	29.9%(259)	11.5%(100)
7	Baby sitter determination and arranging	76.7%(665)	16.7%(145)	6.6%(57)
8	(Sudden absence of caregiver) Deciding who takes care of children instead	48.8%(423)	39.6%(343)	11.6%(101)
9	Applying or using paternity leave	91.9%(797)	7.5%(65)	0.6%(5)
10	Deciding on private tutoring and school	52.5%(455)	37.0%(321)	10.5%(91)
11	Choosing a day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54.6%(473)	34.7%(301)	10.7%(93)
12	Participating in parent education program provided by child care facilities/kindergarten	54.9%(476)	34.7%(301)	10.4%(90)
13	Trying to being home when your child returns from a day care center or kindergarten	68.5%(594)	24.3%(211)	7.2%(62)
14	Getting your child ready (for Kindergarten, play school, etc.)	71.0%(616)	25.5%(221)	3.5%(30)
15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kindergarten/day care teacher	81.9%(710)	15.1%(131)	3.0%(26)
16	Decision-making and visits in order to decide children's private tutoring or private institution	69.3%(601)	26.8%(232)	3.9%(34)
17	Continuous contact and exchange with parents of your child's friends	81.2%(704)	17.5%(152)	1.3%(11)
18	Deciding and preparing your child's birthday party	64.2%(557)	30.0%(260)	5.8%(50)
19	Caring for your child alone without an assistant	40.7%(353)	44.1%(382)	15.2%(132)
20	Communicating frequently with your child during business hours or on the go	53.2%(461)	41.5%(360)	5.3%(46)

고 응답했다.

특히 조사 대상 남성의 70% 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 고 응답한 육아휴직 사용, 담임교사와의 지속적 의견교환, 그리고 베이비시터 결정 및 조율의 항목들은 매우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여성 배우자들이 이 항목들을 거의 전담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종류의 항목들은 책임성의 20개 항목 중에서도 남성들이 참여하기에 부담스러워 하고 꺼려하는 책임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담임교사나 베이비시터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점 즉 양육과 관련되어 대면해야 하는 상당수의 행위자들이 거의 여성인 점, 즉 양육 및 교육 분야에 여성 편중 현상이 남성들이 책임성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직장 분위기로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사용률이 2%에 그치고(그것도 남성 공무원 위주의 사용) 오직 제도으로써만 존재하는 점이 남성들의 책임성 참여를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난 이 아홉 개 항목에서는 자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하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그 중 비율이 제일 낮은 다섯 가지를 보면, '자녀가 아침 점심 저녁 무엇을 먹일지 하는 결정'은 응답자의 4.2%만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고, '육아휴직 사용'은 0.6%만이(응답자 중 1명), '자녀 준비물/ 가방 챙기기'는 4.2%만이, '어린이집 유치원 담임 교사와의 의견교환'은 3.0%만이, '자녀친구 부모와의 지속적인 만남'은 1.8%만이 '자주 한다'고 응답해서, 조사대상 남성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책임성은 여성 배우자에게 거의 맡긴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책임성에 포함된 항목 중에서도, '가끔 한다'와 '자주 한다'고 응답한 남성들의 비율이 적게 않게 나타난 경우도 보였다. 예를 들면 '자녀가 아플 때 직접 병원 예약이나 동반'에는 응답자의 38.3%가 '자주 한다' 그리고 49.1%가 '가끔 한다'고 응답했다. 즉 거의 하지 않는다 12.0%를 제외하고는 남성들의 88.0%(39.3% + 49.1%)가 자녀 병원 예약이나 동반은 가끔 하거나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하나의 항목일지라도 이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자녀 병원 예약이나 동반이라는 항목은 책임성 개념화에 일차적 참고자료가 된 [16]이 fathering의 responsibility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첫 번째 예라는 점이다. [16]은 '자녀가 언제 병원

에 가야 하는지 인지하고 의사 약속을 잡고 의사에게 자녀를 데려가는 행동'을 책임성의 대표적 예로 들었다. [21]도 책임성의 예로 '의사 약속을 잡고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기'를 들었다. 따라서 이 항목이 본 연구의 책임성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남성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 예상한 항목이다. 결국 [16]은 미국의 1980년대 남성 양육 양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 남성들의 참여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책임성이라 할 지라도 만약 자녀의 일상적 건강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난다는 발견은 꽤 의미 있게 보인다. 이것은 병원 예약시스템이 남성들에게 친근하고 편리해진 점(SNS, 전화, 전자 우편 등의 발달) 혹은 병원 접근성이 정규직 남성들에게도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7>의 두 번째 항목인 '자녀가 아플 때 휴가나 조퇴하기' 그리고 '자녀가 아플 때 주 간 호자로 역할하기'도 남성 참여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도 자녀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들의 책임성 참여가 높을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발견이다. 그러나 자녀가 '아프다'는 범위 속에 자녀의 심각한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지연이나 장애까지 들어가는지는 더욱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Table 7>의 책임성 20개 항목 중 '가끔 한다' 비율이 30% 이상 나타난 항목들도 남성들의 책임성 참여가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인데, 자녀 옷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45.5%가 가끔 한다고 응답), 아이용품을 위한 직접 쇼핑(31.7%), 갑작스런 돌봄의 공백이 자녀를 누가 돌볼지 결정(41.9%), 자녀 사교육 및 학원 결정(38.3%), 보육기관 및 유치원 선택(36.5%), 부모상담 및 교육에 참여(35.3%), 자녀생일 파티에 대한 결정 및 준비(31.1%), 자녀를 보조자 없이 혼자 돌봄(44.9%), 업무 시간 중에도 자녀와 자주소통(42.5%) 등이 남성 응답자의 30%이상이 가끔 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항목들에서도 자주한다고 응답한 남성들의 비율은 거의 대부분이 10% 이하로 나타나 남성들의 지속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 4.3 통계분석 결과 3: 비책임성 항목

남성들의 양육 중 비책임성에 관한 결과는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비책임성에 속하는 20개 항목에는 소극적으로 자녀 주변에 있는 항목 다섯 개와(자녀가 놀 때

주변에 있기, 자녀 근처에서 요리, 자녀 근처에서 TV나 핸드폰 보기, 키즈카페나 학원 주변에 있어주기), 적극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요소 15개가 포함되었다. 예상한 대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들이 가끔 한다거나 자주 한다는 응답이 앞의 <Table 7>의 책임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의 50% 이상이 자주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총 4개 항목이고, 남성들의 40% 이상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총 아홉 개다. 첫째가 ‘눈 맞추기나 스킨십’이 제일 높게 나타나 74.3%의 남성들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으며, 두 번째는 ‘자녀가 놀 때 근처에 있기’가 65.9%, ‘직접대화나 대답해주기’가 68.9%, ‘자녀와 놀아주기’가 50.9%의 남성들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네 개 항목에서 가끔 한다는 응답과 자주 한다는 응답과 합하면, 4개 항목 모두에서 남성들의 90%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 응답자의 90% 이상이 눈맞추기나 스킨십, 자녀가 놀 때 근처에 있기, 직접대화나 대답해주기, 자녀와 놀아주기를 가끔하거나 자주한다고 응답한 것이며, 특히 자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자녀와의 교류, 소통, 대화에 해당되는 ‘직접대화나 대답해주기’나 ‘눈맞추기나 스킨십’이 대표적으로 높게 나

타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은 권위적이었던 앞 세대 아버지에게 비해서, 수평적이고 다정한 아버지로 양육을 실천하거나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책임성 <Table 8>에서는 책임성 <Table 7>에 비해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남성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거의 하지 않는다가 50% 이상 나타난 항목은 없었으며, 남성들의 40% 정도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항목은 세 개에 그쳤다; ‘자녀 근처에서 요리’는 49.1%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자녀 학원 데려다 주기’는 49.1%가, ‘자녀 등원이나 하원 시키기’는 46.7%가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요리는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아직도 부담스러운 양육으로 보인다. 의미 있는 발견은,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참여할 것 같았던 학원 등원이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원/하원의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규직 남성들, 특히 S기업 남성들의 근로시간과 관련 있다고 보이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원의 등/하원시간이 대부분 남성들의 근무 시간과 겹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시간이 허용된다면 이러한 등원 하원과 같은 양육은 비책임성 중에서도 남성들의 참여가 적극적일 가능성이 있

<Table 8> Frequency Analysis: Non-responsibility among Fathers

No.	Questions	Hardly	Sometimes	Often
1	Being near or around when your child is playing	8.5%(74)	25.3%(219)	66.2%(574)
2	Cook in the kitchen when your child is nearby	49.6%(430)	38.6%(335)	11.6%(102)
3	Watching TV or watching your cell phone near your child	17.3%(150)	42.3%(367)	40.4%(350)
4	Being nearby when your child is at Kids cafe or play room	36.0%(312)	28.3%(245)	35.8%(310)
5	Trying to minimize the number of going out or appointments to be with your child	22.0%(191)	36.4%(316)	41.5%(360)
6	Child-related housework (child laundry, child room cleaning, ironing clothes, etc.)	23.9%(207)	48.4%(420)	27.7%(240)
7	Feeding your child (prepared meal)	14.2%(123)	47.6%(413)	38.2%(331)
8	Helping your child wear clothes	16.5%(143)	46.4%(402)	37.1%(322)
9	Helping your child's feces	20.3%(176)	33.9%(294)	45.8%(397)
10	Cleaning your child(shower...etc)	17.6%(153)	38.1%(330)	44.3%(384)
11	Getting your child sleep on bed	21.2%(184)	42.4%(368)	36.3%(315)
12	Helping your child with homework	29.6%(257)	54.2%(470)	16.1%(140)
13	Playing with your child (toy play, exercise, etc.)	7.2%(62)	41.8%(362)	51.1%(443)
14	Talking with or answering to your child in person	3.8%(33)	27.0%(234)	69.2%(600)
15	Eye-contacting, hugging, kissing, etc	4.4%(38)	21.1%(183)	74.5%(646)
16	Read to your child	17.6%(153)	45.2%(392)	37.1%(322)
17	Helping your child with getting started such as biking, skiing, swimming, etc	16.7%(145)	34.6%(300)	48.7%(422)
18	Accompanying with your child at beauty salon	34.1%(296)	36.9%(320)	29.0%(251)
19	Riding or walking your child to private institute or tutoring	49.6%(430)	33.3%(289)	17.1%(148)
20	Riding or walking your child to school (or daycare or kindergarten)	47.6%(413)	33.4%(290)	18.9%(164)

다. 자녀 근처에서 요리라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Table 8>의 19개 항목은 가끔 한다와 자주 한다를 합산하면 남성들의 50%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이 중 14개 항목은 남성의 70%이상이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4 분석결과 비교: 책임성항목vs.책임성항목

<Table 9>는 앞에서 설명한 표 7의 결과와 <Table 8>의 결과를 요약 비교한 것이다.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낮은 참여’의 기준은 ①남성들의 50% 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항목이 몇 개 이었는지 ②남성들의 20%미만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항목이 몇 개였는지 ③남성들의 10%미만이 자주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몇 개 이었는지 이렇게 세 가지이다. ‘높은 참여’의 기준은 ①남성들의 50% 이상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항목이 몇 개 이었는지 ②남성들의 30% 이상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항목이 몇 개 이었는지 ③남성들의 50% 이상이 가끔 하거나 자주 하는 것으로 응답한 항목은 몇 개 이었는지의 세 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책임성 항목 20개 중에서는 낮은 참여에 속하는 쪽에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비책임성 항목 20개 중에서는 높은 참여 쪽에 다수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남성들의 50%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책임성 항목에서는 13개가 포함된 것에 비해서 비책임성 항목에서는 한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다. 남성들의 10% 미만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책임성 항목 중 11개가 포함되었고 비책임성에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즉 책임성 항목 20개 중에서는 다수의 항목이 남성들의 저조한 참여를 보였다면, 비책임성 항목 20개 중에서는 남성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항목은 없었다.

높은 참여(<Table 9>의 오른쪽)를 보면, 남성들의 50%이상이 자주 한다고 응답한 항목은 책임성에서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고, 비책임성 항목 중에서는 5개가 포함되었다. 비책임성 항목 20개 중 14개 항목에서는 남성들의 30% 이상이 자주 한다고 응답했고, 책임성 항목 20개 중에서는 하나 그러한 경우가 없었다. 가끔 한다와 자주 한다를 합산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비책임성 항목 20개 중 요리를 제외한 19개 항목이 남성의 50%가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했고, 책임성 20개 항목에서는 7개 항목이 그러한 경우로 나타났다.

<Table 9> Low and High Level of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vs. Non-responsibility

	Low Level of Participation			High Level of Participation		
	Hardly: more than or equal to 50%	Often: less than 20%	Often: less than 10%	Often: more than or equal to 50%	Often: more than or equal to 30%	Sometimes + Often: more than or equal to 50%
Responsibility (see Table 7)	13	19	11	0	0	7
Non-responsibility (see Table 8)	0	2	0	5	14	19

5.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남성들의 자녀 양육 중 책임성 항목 20개와 비책임성 항목 20개를 구성해서 그 참여 정도를 빈도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책임성 항목 중 다수에서 남성들이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책임성 항목의 다수에서 남성들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책임성 항목과 비책임성 항목 양 쪽 모두에서 예외적인 항목은 존재하였다. 책임성의 항목이지만 남성들의 참여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병원 예약 및 동반’ 과 같은 항목은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책임성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연구자가 설문지의 책임성 항목에 넣은 양육 항목들은, 책임성의 개념에 부합하고 책임성의 특성에 충분히 부합했기 때문이다. 책임성 항목 20개 모두가 남성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외도 존재했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앞서 설명한대로 자녀의 일상적 건강/아픔에 관한 휴가/조퇴/병원 문제 등은 분명하게 양육 중 책임성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베이비시터 결정이라든지 담임교사와의 의견 교환이라든지 다른 부모들과의 지속적인 만남 등은 매우 성별화된 양육, 즉 남성들이 아직 접근 및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운 책임성 항목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베이비시터 집단 및 초등학교/보육 기관의 교사들 또한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남성들의 참여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앞서 언급했

다. 이 결과는 여성 집중 직종의 문제 즉 직업의 성별화가 남성과 여성의 양육 불균등, 특히 책임성의 남녀 참여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책임성 항목에서 예외적으로 참여가 저조한 두 개 항목은, 자녀 학원 데려다주기 및 유치원 등원/하원이었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근로시간 길이 및 근로의 비유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사 대상 남성들이 재직 중인 직장은 긴 근로시간과 야근 문화 등으로 근로 문화 자체가 자녀 등 하원을 방해하는 구조이며 근무시간의 자율성/유연성이 적은 구조이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남성들의 긴 근로시간이 자녀양육 참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남성들이 기꺼이 참여할 만한 등/하원이 참여가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그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즉 근로시간 문제는 남성의 책임성과 비책임성 참여 양쪽 모두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중산층 이상 고학력 젊은 남성으로 제한할 경우 양육 분담에 대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인식 수준은 진보적일 수 있다. 경직된 직장 문화와 지나치게 긴 근로시간이 남성들의 양육 참여를 저해하는 우선적 요인일 거라는 의심이 가능하다. 근로시간과 양육과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본 연구에서 더 이상 깊게 언급하지 않고 후속 연구 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본 논문은 매우 균질한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S기업 재직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법을 사용해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그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확률표집을 사용하고 대규모 표본을 사용해서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즉 후속 연구는 자료 분석에 요인분석이나 회귀분석을 이용해서 남성들의 자녀양육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책임성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양육의 관심 범위를 확장시켰다. 자녀를 돌보고, 놀아주는 것도 양육이지만, 자녀 의식주, 교육, 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결정, 대비, 계획, 감정 소모도 양육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연구는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특히 대다수의 여성들 혹은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나 어떤 사유로 양육을 혼자 담당하는 남성들에게는 이

러한 양육의 책임성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본 연구가 아버지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남성 양육 참여 연구이므로, 남성의 돌봄을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우리나라의 돌봄 논의는 주로 여성의 돌봄 논의에 집중되어 왔고 그 논의의 핵심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돌봄의 공백과 그 해결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11]에서 재인용). 남성의 돌봄, 남성 양육, 남성 양육 책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버지의 책임성 있는 양육 참여는 매우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남성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가 계속 활성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출산 증대 및 노동력 인구 증가 또한 간접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 실행 과정에서 남성의 양육 특히 책임성을 증진시킬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아버지의 양육 참여 특히 책임성에 해당하는 양육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일까? 연구자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재고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연구자는 이제껏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일 가족 양립정책의 대표이자 하나인 거시적 제도로만 보아왔는데, 본 연구를 계기로 육아휴직을 남성들의 책임성 참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름길 중 하나로 보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남성들이 특정 제도를 통해 1) 양육에 장기간 참여해야 하며, 2) 양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3)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에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 일차적 양육자로 양육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는 남성들로 하여금 양육의 책임성을 인지하게 하고 부담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이 여성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수 있는 며칠간의 배우자 출산 휴가보다 1년 동안의 육아휴직이 남성들의 양육 책임성 참여 증진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하고 자세한 양육에 참여해 본 남성은 단순히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버지를 넘어 여성과 유사하게 책임성을 인지하고 책임성을 부담하는 아버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육아휴직이 남성들을 장기간 양육의 세세함까지 참여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의 양

육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정 내의 미시적 지점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들 아홉 명을 심층 면접한 [2]의 질적 연구도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진정한 양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의 가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구내의 미시적 성 분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남성에 대한 육아휴직은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차례 제도적 확대를 통해 2014년부터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부 근로자 모두 1년간(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만 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긴 편에 속한다. 예를 들면 스웨덴은 1995년 파격적인 아버지 할당제(daddy's quota) 형식을 도입했는데, [11]에 의하면 남성이 가족이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 360일 중 60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양도받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한 기간만큼 휴직 기간이 없어지는 방식(use or lose) 이다([20]; [13]; [2] 등 참조). 또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육아휴직이 가족수급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이 개인 수급권이므로 더 선진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11]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문제는 턱없이 적은 소득대체율과 남성의 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경우,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최소 50만원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2]. 단, 직장복귀를 장려하고 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소득 대체율은, 대체율 80%인 스웨덴, 100%인 노르웨이, 50%인 일본 등에 비해서 매우 낮다(대체율 자료는 [11]의 표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후에 이직이나 퇴직을 각오를 하는 것처럼,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승진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맞벌이 가구가 적지 않은 현재에도 일차적 생계부양자인 남성들은 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30-40대 남성 육아휴직자를 심층 면접한

[3]의 질적 연구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남성들은 본인이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는 것은 일종의 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드러났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가 2013년에는 1790명, 2014년에는 3,421명, 2015년 상반기에는 2,212명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사용자는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의 5%에 그친다. 그리고 이 5%도 해당하는 남성도 종사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그리고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양극화 경향을 보인다[2]. 1년간의 육아휴직이 우리나라 남성들 양육 참여의 양과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자 중 여성이 95%라는 점은 매우 아쉽다.

물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그들의 양육 책임성을 증진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앞으로 남성들의 양육에 관한 대표성 있는 시계열적 자료가 마련된다면 먼 미래에는 책임성과 관련 제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도전성은, 양육을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성 정치적 영역으로 규정한 점, 특히 남성의 양육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온전한 양육 분담, 양성 평등적 양육을 지향한 점에 있다. 기존의 남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학, 아동학, 간호학 등이 주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의 양육 참여와 책임성을 이러한 성 정치적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양육을 성 정치적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성 부분을 강조할 수 있었다. 여성은 양육 책임성의 일차적 부담자이고, 남성은 책임성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있는데, 이 책임성 부분이 성별 간에 온전히 공유되지 않으면 양성 평등적 양육은 실현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양육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책임성을 중심으로 온전히 공유될길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책임성은 행동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걱정 등 감정까지 포함하는데 계량적 연구의 본질 상 감정 부분을 측정하지 못했다. 추후에 양육 및 책임성의 정서적 측면까지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학문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상이

매우 특정 집단으로 한정된 점이다. 양육 및 책임성은 가족 형태나 자녀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행위와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양육은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행위이며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가족형태, 자녀상태,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산층 이상 고학력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의 양육 책임성을 위한 시발적, 탐색적 연구이자 관심의 촉진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year 2016.

### REFERENCES

- [1] Kim, J. S. "Prosocial behavior of infants according to fa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ing participation,"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Not published), 1999.
- [2] Kim, J. W. & Kwon J. "A Qualitative Study on Fathers' Parental Leave Experience," 『Korean Social Policy』, Vol. 22, No. 3, pp. 265-302, 2015.
- [3] Na, S. E. "Male parenting and Composition of Meaning of Equal Parental Role," 『Feminism Research』, Vol.14, No. 2, pp. 71-112, 2014.
- [4] Nam, H. J. ·Lee, S. H. "The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parenting stress," 『Korean Family Relations』 Vol.16, No. 2, pp.107-121. 2011.
- [5] Suh, S. W. Lee, D. K. "The Influence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Development on Social Development: Mediating Effect of Mother's Parenting Stress,"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19, No. 2, pp.157-178, 2011.
- [6] Shin, Y. J.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Participation Role of the Father," 『Life Science Research』 Vol.13, pp.45-55, 2008.
- [7] Yoo, J. Y. "A Study on the Responsibility of Paternal Childcare: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Social Welfare Policy』 Vol.41, No. 4, pp. 1-19, 2014.
- [8] Lee, D. O.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of parental discourse discourse," 『Gender and Culture』 Vol.7, No. 2, 147-180, 2014.
- [9] Lee, S. R.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Work Experience and Career Preparation during the Study of Local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Undergraduate Students at K University in Jeonbuk Province," 『Korean Youth Research』 Vol. 39, pp.5-39, 2004.
- [10] Lee, J. H.·Kim, J. O.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Korean Family Relations』 Vol.14, No. 3, pp. 61-89, 2009.
- [11] Jang, J. Y. "Utiliz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Paternity Leave," Monthly Korea Union. Januar 2014. pp. 36-37, 2014.
- [12] Jo, Y. K. "The Change of Father's Role after Neoliberalization: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Market and Family Change," 『Korean Society of Sociology』, 2008.
- [13] Jo, Y. K. "Parenting of Korean Fathers: Focusing on Participatory Childcare / After-School Participation," 『Ethnographic culture』 Vol. 47, pp. 150-191, 2011.
- [14] Chae, J. Y.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communication, the self - image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 satisfaction of life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1, No. 1, pp. 39-48, 2013.
- [15] Han, Y. J. · Kim, S. A. "Equitable Parental Roles of Dual-Earner Parents Values and Parenting Performance Competence and Parenting,"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5, No. 2, pp. 165-177, 2006.
- [16] Lamb, M. E. "The changing roles of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s*, pp. 3-27, New York: John Wiley &



- Sons, 1986.
- [17]. McBride, B. A., & Mills, G. "A comparison of mother and father involvement with their preschool age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pp. 457-477, 1993.
- [18]. Nehring, W. M., & Cohen, F. L.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effects of a parent's chronic illness on parenting tasks,"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 pp. 111-123, 1995.
- [19] Palkovitz, R. "Reconstructing involve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A. Hawkins and D. Dollahite (Ed.), *Generative fathering: Beyond deficit perspectives*, pp. 200-216, Thousand Oaks, CA: Sage, 1997.
- [20].Pleck, J. H. "Why could father involvement benefit children? theoretical perspectives," *Applied Development Science*, Vol. 11, No. 4, pp. 196-202, 2007.
- [21] Pleck, J. H. and Stueve. "Time and Paternal Involvement," in *Minding the time in family experience: emerging perspectives and issues*, (ed.) by K. J. Daly. Elsevier Science, pp. 205-226, 2001.
- [22]. Radin, N. "Childrearing fathers in intact families, I: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Merrill-Palmer Quarterly*, Vol. 27, pp. 489-514, 1981.
- [23]. Silverstein. "Fathering is a feminist issu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pp. 3-37, 1996.

유 지 영(Yoo, Jiyoung)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화학화 (이학사)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문학석사)
- 2006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Ph.D.)
- 2008년 9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방법론, 여성정책, 청년, 기본소득
- E-Mail : jiyoungyoo@nsu.ac.kr